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방향 -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I. 들어가는 말

중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고등학교 교육이 생애 진로를 결정하는 첫 관문의 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가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보편화와 평생교육이념의 확산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고, 산업체 취업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직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인력 수요가 산업분업에 따라 변화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수를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왔기 때문에 자연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자원 부족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학교 입학생 미달현상은 1997년 약 9,725명, 1998년 12,441명, 1999년 약 12,2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인문숭상주의의 영향으로

직업교육은 천시 받아왔으며 실업계 고교 출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더욱이 사회 전반이 엘리트 교육에 치중한 결과, 청소년 중 40%에 해당하는 실업계 출신인구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어 오지만

실업계 고교교육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다.

특히 산업계 변화에 대한 실업계 고교의 대응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5년 주기 교육과정 개편방식은 산업계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미흡으로 기술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교육 운영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환경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 직업환경의 변화와 교육체제 내적인 변화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는 비단 교육만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될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체제 개편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강 무 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인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II.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배경

실업계 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배경은 크게 경제 및 직업환경의 변화요인과 교육 체제 내적인 변화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경제 및 직업 환경변화

첫째 지식기반경제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21세기는 사회 전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가공·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둘째 산업구조와 직업세계가 변화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즉 광공업(제조업)의 GDP에 대한 기여도가 1997년까지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고용형태 및 직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평생직장의 개

념에서 평생직업 및 한시적 직업(임시직, 계약직 등) 개념으로의 고용행태가 변화하고 있음은 물론 직업수준도 단순기능직에서 기술직, 준전문직·전문직으로의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직종별·기업체별 고졸 인력 수요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전체 산업인력 중 고졸 출신 산업기능인력은 41.8%로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조사연구결과 대기업이 0.6%, 중소기업이 7.7%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1998).

특히 최근의 직능원 조사(1999)에 따르면 대기업에서는 대졸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수요가 큰 반면, 중소기업은 실업계 고교 졸업수준의 기능인력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요컨대 학교 중심의 종국적 교육에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으로, 교육과 훈련의 분리에서 교육과 훈련의 효율적 연계로, 중심 인력 양성체계에서 양성통로와 방법의 다변화 체계로, 일과 현장의 통합으로 직업 교육 전반에 걸쳐 일과 직업의 연계를 가진 현장

〈표 1〉 산업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

	학력별		학력별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고졸
대기업 (300인 이상)	1.1	7.7	44.1	13.2	33.9
중소기업 (300인 이하)	0.5	2.5	27.7	21.5	47.7
029,692	4,885	29,827	218,512	113,257	263,212
(100)	(0.8)	(4.7)	(34.7)	(18.0)	(41.8)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 1997. 3.

〈표 2〉 기업체 규모별 학력별 인력수요 정도

(단위 : 명, %)

	전문대	실업고	
15.9	21.2	58.4	4.4
14.6	18.8	57.6	9.0
16.5	19.8	53.5	10.5
40.7	10.2	45.4	9.7

성 있는 산학협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전통적 인문숭상주의의 영향으로 직업 교육은 천시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실업계 고교 출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작금의 실업계 고교 교육의 위기는 교육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가정, 학교를 통해 나타나는 종합적인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실업계 고교 문제의 위기 극복의 문제는 교육제도만이 아니라 사회제도, 청소년 대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즉 사회는 실업계고교 졸업자들이 취업 후 산업인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학력 학벌위주의 사회구조와 과도한 임금격차,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교육외적인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지향이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지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및 진로판단·권고제에 따른 학교 선택권 강화 등은 수요자 중심교육 지향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또한 교육의 최종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구 및 수

요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배경 가운데 경제 및 직업 환경의 변화 요인은 1)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도래 2) 산업구조와 직업세계의 변화 3)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 4)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5) 수요자 중심 교육 지향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찾아볼 수 있다.

2. 교육체제 내적인 배경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교육외적인 배경이외에 교육체제 내적인 요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육체제 내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로 고등학교 학생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계 고교는 '97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계 고교는 '99년 이후 완만한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실업계 고교 입학생 미달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97년 9,725명, '98년 12,441명, '99년 12,200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둘째 정부의 고등교육 개방 정책추진 등으로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가 되었다. 대학 입학 정원의 단계적 자율화 추진으로 “모든 고졸자에게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교육기회 보장”을 천명(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의 ‘신직업교육체제의 구축’ 방안)한 바 있다. 이에 실업계 고교생을 위한 2+2제도 도입, 신대학(기술대학) 도입, 노동부 산하의 기능대학 등 각 부처가 관장하는 대학(교) 설립 증가,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 취득, 독학사 학위제도, 방송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다양한 학점 학력인정 제도 등으로 실업계 고교생의 고등교육 진학 기회도 확대되었다.

셋째 실업계 고교생의 학교 부적응 및 흥미가 감소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무관심, 실업계 고교내의 중도 탈락생 증가, 비행청소년 증가 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동안 사회 전반이 엘리트 교육에 치중한 결과, 청소년 중 40%에 해당하는 실업계 출신인구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어오지만 실업계 고교교육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다. 특히 산업계 변화에 대한 실업계 고교의 대응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5년주기 교육과정 개편방식은 산업계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미흡으로 기술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교육 운영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 및 산업계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직업교육정책의 일

관성 부재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실업교육은 50년대는 1인1기 교육을 통해 초기공업화에 기여, 60년대는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교육(1967~1971)’을 통해 직업기술교육강화, 70년대는 직업교육이 경제개발정책으로 사회적수요 증가와 함께 교육정책의 핵심을 이루면서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고등학교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의 퇴조경향을 보였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실업계 고교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생기게 된 것이다.

특히 '80년대 말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비율 68대32를 '90년대 중반까지 50대50으로 조정한다는 정책은 '99년 현재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생 비율 60대40까지 조정하게 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생의 양적 증가는 다소 가져왔지만, 질적 저하로 인하여 지금의 실업계 고교 교육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Ⅲ. 개편 방향 및 구체적 방안

1.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 개편의 방향과 모형

가.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원칙

고등학교 체제 개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평생교육이념의 구현에의 기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 교육이 아닌 계속 교육의 스펙트럼 속에서 중간 교육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 수요자의 학습 선택권 보장

교육 수요자의 적성, 소질 그리고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유형을 다양화함은 물론 고등학교 단계에서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단위 학교 내에서 계열을 통합화하고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3) 고등학교 교육과 학생 진로의 연계 강화

고등학교 과정 이수 중 또는 과정 이수 이후 진학·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업 진로를 선택한 경우 취업 준비 단

계로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4) 일과 학습의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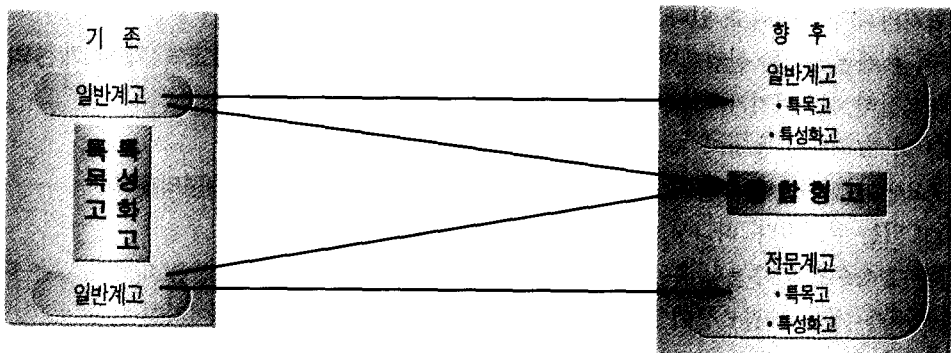
산학협동, 현장실습, 산업체 노동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실시하며 자격증 취득 요건과 산업체 직업능력 수요간의 일치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5) 직업기초능력 및 전문능력의 조화로운 함양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 자신의 삶 또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여 폭 넓은 직업기초능력을 바탕으로 취업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나.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모형

이상에서 제시한 개편의 원칙을 유지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모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림 1〉 고등학교 유형 다양화 모형

1) 고등학교 유형 다양화 모형

학생들의 조기 진로 선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진로 선택이 가능한 통합형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한다. 통합형 고등학교는 진학과정과 다양한 직업과정을 동시에 개설하여 수요자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과정 선택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교를 직업전문교육을 강조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개편한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수·해양, 가사·실업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화·내실화한다. 그 방안 가운데 하나는 농업, 공업, 상업, 수·해양, 가사·실업 등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것이다.

특정 분야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계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설치한다.

한편 일반계 고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통합형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한편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는 희망하는 고등학교 중에서 점차 통합형 고등학교 또는 특수 목적이나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 유도한다. 적성보다는 중학교 성적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진학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선택이 가능하도록 통합형 고등학교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 특히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는 산업사회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규모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2) 교육 수요자의 진로 선택 과정 모형

중학교 단계의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진학시 1차 진로선택이 이루어지나 통합형

고등학교 진학 학생은 1차 진로 선택을 유보하도록 한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정이수를 통하여 1차 또는 2차 진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학년의 선택 과정을 통하여 진로 궤도가 수정된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장 경험을 살려 상위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계열의 특수목적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다양한 대학 진학 진로를 연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2.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 개편의 구체적 방안

이 절에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필요성, 정책방향, 정책방안, 기대효과 및 예상문제 순서로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가.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의 정예화·전문화

1) 필요성

산업현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전문기능인력의 양성하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내실화 및 유인가를 제고한다.

2) 정책 방향

탄력적 학교 운영을 통한 실업계 고교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산업계 기술 수요 변화에 따른 실업계 고교 규모 적정화하고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제고,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3) 정책 방안

- 실업계 고교 유형 전환의 자율성 및 융통성 보장
 - 미래 유망 직종 전망 및 산업계 기술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실업계 고교 신설 및 전환 유도
 - 단위학교 판단에 의한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자율성 최대 부여
- 실업계 고교의 적정규모로의 조정
 - 실업계 고교 유형별 규모는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적의 조정
 - 장기적으로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비율을 줄이고, 통합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비율을 늘려 나감.
 - 실업계 고교는 희망교 우선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 목적고등학교, 통합형 고등학교 등으로 전환 유도
-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 직업군 중심의 학과 또는 코스제 교육과정 운영: 1학년은 공통보통교과와 직업기초공통교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2학년부터 다양한 전공과정의 코스제 교육과정 운영
 - 학생의 학습능력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의 설계·운영: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발·적용 및 이동식 수업 운영
 - 졸업후 관련분야로의 취업 및 동일 전공분야로의 진학이 가능하도록 이원화하고 산업체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운영체제 개선
 -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충분하도록 연속적인 현장 체험학습과 현장 실습 실시
-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 제고와 관련 산업체 인사를 교육과정·교재개발 및 교수·학습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과 교사 임용권 최대한 부여
- 실업계 특수목적 고등학교 확대·육성
 - 국가기간산업 및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부문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공립 학교를 중심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 선정·운영
 -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교사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
 - 전문 교과 교사에 대한 이론 및 실기 연수 강화
 - 새로운 전문교과과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문교과 교사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교사간 교과연구회 구성 유도 및 지원 강화
- 실업계 고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학교운영비, 시설 및 기자재, 장학금 지원확대
 - 장기적으로 실업계 고교 무상 교육화 및 생활보조금 지원책 강구
- 졸업생들에게 병역특례 혜택 부여
 - 국가 인정 자격증 소지자의 일정기간 산업체 의무 근무 조건으로 병역특례 혜택 부여
- 계속교육 기회 보장 : 일정기간 산업체 의무 근무 후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

4) 기대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점

이러한 방안의 실시가 가져다주는 기대효과로는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이 가능해지며 실업계 고교로의 우수학생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규모

조정으로 인한 교사 수급 및 해당 학교 교육의 혼란이 예상되며 국방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 간 협조 유도의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1) 필요성

입시 위주·주지교과위주로 획일화된 고등학교를, 학생의 소질과 적성,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체제로 전환시키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단계부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가 필요하다.

2) 정책 방향

사회의 수요가 있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흥미와 관심이 있는 매력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한다. 이때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교육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3) 정책 방안

-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의 신설 및 기존 실업계 고교의 전환 적극 유도
- 특성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5년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허용
- 교원의 전문성 강화
- 특성화 고등학교 재정 지원 강화
- 특성화 고등학교 성공 모델 선정 사업 추진
-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 모형 및 교재 개발 지원
- '특성화고등학교교육협의회(가칭)' 설치 유도 및 지원

4) 기대 효과 및 예상되는 문제

고등학교를, 학생의 소질과 적성,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학생의 교육선택의 폭을 확대시킬 수 있고 소질과 적성,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교육받게 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철학과 이념도 없고 시설과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사립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난립할 가능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다. 통합형 고등학교의 도입

1) 필요성

고교생의 진로 선택 시기를 연장하고 진로변경 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학생의 교육권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운영함은 물론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한 학교 내에서 진학과정과 취업과정간의 이동

을 허용하는 통합형 고등학교의 점진적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며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3) 정책 방안

-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알맞은 모형을 선택하여 운영함
- 실업계 고교와 일반계고교가 동시에 참여하도록 하되, 희망학교에 한해 운영
- 학생 선발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결정
- 학생들의 계열 이동 및 과목교차 이수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코스 개발
- 공통과정은 직업기초능력과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공통기본과목 편성
- 2·3학년에서 이수하는 직업과정과 일반과정 모두 각 과정마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편성
- 전문교과 교사를 위한 대책 마련
- 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4) 기대 효과 및 예상 문제점

한 학교 내에서 진학과정과 취업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 접근, 실생활에서의 지식과 기술의 응용력을 강조함으로써 이론과 실제를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종합고 실패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시각, 대학 진학 선호에 따른 직업계열(과정)의 위축, 전문교과 담당 교사의 과원교사화와 이에 대한 교사의 반발, 고

비용(통합 고교 교재 개발, 교사 연수 등) 학교 유형으로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필요성 등 그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다.

참고 문헌

강무섭(1998). 21세기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발전의 방향과 과제. 교육부.
 노동부(1997). 매일노동통계 조사보고서.
 노동부(1998).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 보고서.
 조은상외(199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이무근(1999). 직업교육학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